

KCC, 정몽익 대표이사 사장 선임



KCC는 정몽익(44) 총괄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.

정상영 명예회장의 2남인 정몽익 사장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9년 금강에 입사해 금강 관리본부 본부장 및 금강고려화학 부사장을 거쳐 2005년부터 KCC 총괄부사장으로 역임해왔다.

KCC는 “정몽익 사장이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KCC는 이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성수 전무(중앙연구소장), 이종길 전무(영업본부장)를 등기이사로 새로 선임했다.

<화학저널 2006/02/28>